

#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편그라운드, 청소년 대상 생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생존ABC' 운영 시작

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입력 2026-06-07 08:11 수정 2026-06-07 08:11

재난 대응 체험활동 통해 위기 대처 능력 향상...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편편마켓'도 개최



남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정약용편그라운드가 청소년들의 안전 의식과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 '생존ABC'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재해와 각종 도시형 재난 상황을 가정해 청소년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마련됐다. 기존 강의식 안전교육과 달리 참가자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첫 번째 과정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참가 청소년들은 재난 상황 카드 미션을 활용한 대응 훈련을 비롯해 팀 단위 임시 대피소 구축, 안전 대피 경로 탐색 등 협동과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생존ABC는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7월에는 수상 안전 및 생존 기술, 9월에는 야외 생존에 필요한 불 피우기 체험, 11월에는 숙박형 생존 챌린지 등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필요한 생존 기술과 위기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효진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실제 상황과 유사한 체험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약용편그라운드를 청소년 성장과 안전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6일에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생 행사 '편편마켓'도 열렸다.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행사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과 공연 프로그램, 다양한 체험 콘텐츠가 마련됐다. 청소년들은 여러 체험 부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행사와 프로그램 관련 세부 일정은 정약용편그라운드 홈페이지와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